

# 길례 의식에서의 협률랑 운용 방식 연구

최 선 아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선임연구원)

## 〈차 례〉

1. 서론
2. 길례 의식에서 협률랑의 운용 방식
  - 1) 고려시대
  - 2) 조선시대
3. 결론

## 【국문초록】

협률랑(協律郎)은 궁중의례에서 휘(麾)를 잡고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역할을 맡았던 관리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고려사』 「예지」 기록을 검토하여 고려시대 길례(吉禮) 의식에서의 협률랑의 인원수와 위치, 용악(用樂) 지시 횟수, 휘를 들거나 놓힐 때 예(禮)를 표하는 동작 등 협률랑의 운용 방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국가의례에서 행례자 및 제례의 대상에 따라 의례 내용에 차등을 둔 것과 같은 원리로 협률랑의 운용에 있어서도 차등을 두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를 검토한 결과, 조선시대 길례 의식에서의 협률랑의 운용 방식에 변화가 생겼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조선시대의 협률랑의 예(禮)가 더욱 곡진(曲盡)해 졌음 또한 알게 되었다.

【주제어】 협률랑, 휘, 길례, 오례, 국가제사

## 1. 서론

협률랑(協律郎)은 궁중의례에서 휘(麾)를 잡고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역할을 맡았던 관리이다. 필자는 앞선 연구에서 한국 역사에 협률랑이 처음 등장했던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의 문헌 자료를 검토하여 협률랑의 소속 기관과 담당자의 신분 등 관제(官制)에 관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고려시대 협률랑은 당(唐, 618~907)의 태상시(太常寺)의 관원 협률랑(정8품 상)에서 왔는데, 목종(穆宗, 재위: 998~1009) 대 이후 관직명이 아닌 집사관명(集事官)으로만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협률랑은 건국 당시 1392년(태조 1)과 갑오개혁이 진행되었던 1895년(고종 32) 관제에만 각각 봉상시(奉常寺)와 봉상시(奉常司) 소속의 관원으로 소개되었다. 아마도 협률랑이 봉상시의 관원으로 확인되는 1396년(태조 5) 기록 이후 더 이상 관직명이 아니라 궁중의례에서의 집사관명(集事官)으로만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1430년(세종 12) 이전에는 여러 기관의 관원이 협률랑을 맡았고, 1430년(세종 12)에는 봉상시의 녹사(錄事, 정9품) 2인이 맡았다. 그러나 봉상시 녹사가 음률을 잘 알지 못해서 협률랑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1464년(세조 10)에 제향과 조희에서의 협률랑은 장악원의 전악(典樂)이 맡게 되었다. 그런데 1472년(성종 3)에는 조관(朝官)이 아닌 전악이 협률랑을 맡는 것은 옛 제도에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1472년 이후부터 갑오개혁(1894) 이전까지 422년 동안은 으레 장악원의 정(正3품 당하관)이 협률랑이 되었다. 단, 무신의 제사인 관왕묘에서는 무신인 선전관(宣傳官)이 협률랑을 맡았다.

이상이 선행 연구의 결론이다.<sup>1)</sup> 본 연구에서는 당시 지면의 한계로 후속 연구로 미루었던 시대별, 의례별<sup>2)</sup> 협률랑의 역할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먼저 『고

1) 줄고, 『협률랑(協律郎)의 관제(官制)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사학보』 제55집(한국음악사학보, 2015), 225~261쪽.

2) 『고려사』 『예지』에서는 길례와 가례에서만 협률랑의 역할이 확인된다. 그런데 의례의 성격상 길례와 가례에서 협률랑의 등장하는 시점이 다르고, 조선시대 가례의 경우 의식이 많을 뿐만 아니라 내연의 경우 협률랑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길례와 가례 의식에서의 협률랑의

려사』 『예지』 기록을 검토하여 고려시대 길례(吉禮) 의식에서의 협률량의 인원수와 위치, 용악(用樂) 지시 횟수, 휘를 들거나 놓힐 때 예를 표하는 동작 등 협률량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본 후,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를 검토하여 조선시대 길례 의식에서의 협률량 운용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협률량의 사적 존재 양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 2. 길례 의식에서 협률량의 운용 방식

### 1) 고려시대

고려시대 협률량은 오례(五禮) 중 길례나 가례(嘉禮) 의식에서 악기를 진설하고, 휘(麾)를 잡고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고려시대 길례 의식 중 대사(大祀)와 중사(中祀)<sup>3)</sup>에서 음악이 연주되는 경우에는 협률량이 반드시 등장했다.(〈표 1〉 참조)

〈표 1〉 『고려사』 『예지』 길례 의식에서의 협률량의 운용 방식

길례 의식			협률량의 용악(用樂) 지시		협률량의 인원수와 위치
대사	원구(園丘)	친사의(親社儀)	전옥백(奠玉帛)	국왕이 관위로 나아가 감.(무릇 악은 다 협률량이 휘로 지시) 행사 청함(請行事).	단 위 등가의 서북쪽(1명), 헌가 서북쪽(1명). 모두 동향.
		유사섭사의(有司攝事儀)	전옥백	행사 청함.	단 위 등가의 서북쪽 동향.
		맹하(孟夏) 친우(親雩)		용악 설명 無	無
	방택(方澤)			용악 설명 無	無

역할 변화를 함께 논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고려와 조선시대 가례 의식에서의 협률량의 역할 변화와 관련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논하고자 한다.

3) 길례의 소사(小祀)에는 협률량이 등장하지 않는다.

	사직(社稷)		전옥백	행사 청함.	대사단 위 동남쪽 서향.
	태묘(太廟)	체협(禘祫) 친향의(親享儀)	신관(晨祿)	국왕이 관위로 나아감.	당 위 전영 밖 서쪽(1명), 헌가의 서북쪽(1명). 모두 동향
		체협 유사섭사의	신관	행사 청함.	당 위 전영 밖 서쪽 동향.
		사맹월급납(四孟月及臘) 친향의	신관	국왕이 관위로 나아감. 행사 청함.	당 위 전영 밖 서쪽(1명), 헌가의 서북쪽(1명). 모두 동향.
		사맹월급납 유사섭사의	신관	행사 청함.	당 위 전영 밖 서쪽 동향.
		삭망친신(朔望薦新) 기도급주구의(祈禱及奏告儀)		음악 無	無
	별묘(別廟)	체협향사시상향급납향(禘祫享四時常享及臘享) 섭사의		음악 無	無
	경령전(景靈殿)	정조단오추석중구(正朝端午秋夕重九) 친존의(親尊儀)		음악 無	無
제릉(諸陵)	배릉의(拜陵儀)		음악 無 (공민왕 때는 음악)	無	
중사	적전(籍田)	친향의	궐향(饋享)	국왕이 관위로 나아감.	단 위 등가의 서쪽(1명), 헌가 서북쪽(1명). 모두 동향.
		유사섭사의	궐향	행사 청함.	단 위 등가의 서북쪽 동향.
	문선왕묘(文宣王廟)	선잠(先蠶) 향의	궐향	행사 청함.	단 위 등가의 서북쪽 동향.
		시학작헌의(視學酌獻儀)		음악 無	無
		중춘중추상정(仲春仲秋上丁) 석전의(釋尊儀)	궐향	행사 청함.	전 위 등가의 서쪽 동향.

『고려사』 『예지』의 길례 의식에서의 ㉠ 협률량의 인원수와 위치, ㉡ 협률량의 용악 지시 횟수, ㉢ 협률량이 휘를 들고 눕힐 때 예를 표하는 동작은 다음과 같다.

㉠ 협률량의 인원수와 위치

국왕이 친히 제사하는 친사의 또는 친향의에서는 협률량이 2명 배치된다. 1명은 단(壇) 또는 당(堂) 위 등가의 서북쪽(원구)/서쪽(태묘, 적전)에 위치하고, 나머지 1명은 헌가의 서북쪽에 위치하며 모두 동향한다. 원구와 태묘, 적전의 해당 관청에서 대행하는 유사섭사의와 선잠의 향의, 문선왕묘의 석전의에서는 협률량이 1명 배치되는데, 단(혹은 당, 전) 위 등가의 서북쪽(원구, 적전, 선잠) 혹은

서쪽(태묘, 문선왕묘)에서 위치하며 동향한다. 단, 사직의 경우에는 대사단 위에 동남쪽에서 위치하며 서향한다.<sup>4)</sup>

결국 행례자에 따라서 협률랑의 운용에 차등을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㉒ 협률랑의 용악 지시 횟수

길례 의식에서 협률랑이 휘를 사용하여 용악을 지시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원구 친사의 진옥백(鎭玉帛) 기록에서는 ①<sup>5)</sup>국왕이 정문으로 들어와서 판위로 나아갈 때, “협률랑이 휘를 놓히고 어를 올리면 주악을 멈춘다.”는 설명에 이어서 “무릇 음악은 모두 협률랑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엎드렸다가 휘를 들고 일어나면 악공이 축을 올린 다음 연주하며, 휘를 놓히고 어를 올린 다음에 중지한다.”는 기록이 나온다. 따라서 원구 친사의에서는 모든 음악의 시작과 그침이 협률랑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사료 1〉 『고려사』 권59. 지(志)13, 예(禮)1. 길례대사 원구. 친사하는 의례(親祀儀) · 진설(陳設).

제사 하루 전에, … 협률랑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단 위 등가의 서북쪽에, 한 사람은 헌가의 서북쪽에 모두 동향하여 선다.<sup>6)</sup>

· 희생과 제기를 살핌[省牲器].

희생을 살펴보는 날, … 미후 3각(오후 1시 30분경~45분경)에…, 협률랑이 악기를 펼쳐놓아 보고는 재소(齋所)로 돌아간다.<sup>7)</sup>

- 
- 4) 『고려사』 「예지」의 사직은 친사의(親祀儀) 혹은 유사섭사의(有司攝事儀)란 설명 없이 하나만 기록하고 있는데, 태위(太尉)가 초헌을 하는 것으로 보아 유사섭사의로 추정된다. 따라서 협률랑도 1명만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 卷59.29b. 志13, 禮1, 社稷. 陳設. 前祭一日, …設協律郎位於大社壇上東南西向. 한편 고려시대에 사직에서의 협률랑의 위치와 주시 방향은 다른 제사와 반대이지만, 대사(大社)와 대직(大稷)의 신위는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북쪽에서 남향하였다. 이재숙 외, 『조선조 궁중의례와 음악』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18쪽.
- 5) 이 글에서는 국왕이 친히 제사하는 친사의나 친향의 절차는 ①, ②, ③ … 숫자로, 국왕이 참석하지 않는 유사섭사의 절차는 ㉠, ㉡, ㉢ … 한글 자음으로 순서를 매겨 서로를 구분하였다.
- 6) 『고려사』 卷59.3b-4b. 志13, 禮1, 吉禮大祀. 圜丘. 親祀儀. 陳設. 前祀一日, …協律郎位二一於壇上樂處之西北一於軒架之西北俱東向. 원문은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국역 고려사』 16, 지4(경인문화사, 2011), 559쪽 인용, 번역문은 같은 책, 14~15쪽 인용.

· 옥과 폐백을 올림[奠玉帛].

제삿날 날이 밝기 전 1각에, …왕이 정문으로 들어오면 협률랑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엎드렸다가 휘를 들고 일어선다. …악공이 축을 치면 헌기는 황중궁의 <정안지곡(正安之曲)>을 연주한다. 국왕이 층계를 오르내릴 때나 오가고 멈춰 설 때마다 모두 <정안지곡>을 연주한다. 국악이 관위(版位)에 이르러 서향으로 선다. …휘를 높히고 이를 올리면 주악을 멈춘다. 무릇 음악은 모두 협률랑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엎드렸다가 휘를 들고 일어나면 악공이 축을 올린 다음 연주하며, 휘를 높히고 이를 올린 다음에 중지한다.

태상경이 앞으로 나아가 “재배하기를 청하나이다.”라 아뢰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왕이 재배한다. 봉례가 “재배”라고 하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관원이 재배하되,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않는다.

태상경이 앞으로 나아가 “해당 관청에서 삼가 준비하였으니 행사하소서!”라 하고 이된 뒤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협률랑이 휘를 들면 헌기는 협중궁의 <경안지곡(景安之曲)>을 세 번 연주하고, 황종각(黃鍾角), 대주치[大簇徵], 고선우(姑洗羽)의 곡조로 각각 한 번 연주한다. 문무(文舞)를 시작하여 여섯 번 행하고, 휘를 높히면 주악을 멈춘다.<sup>8)</sup>

다음으로 태묘의 사맹월(四孟月) 및 납(臘)일의 친향의 신관(晨禋)에서는 ① 국왕이 정문으로 들어와서 관위로 나아갈 때, ②태상경이 나아가 “해당 관청에서 삼가 준비하였으니 행사하소서.”라고 행사를 청할 때, 이렇게 2번만 협률랑이 휘를 사용하여 용악을 지시한다. 그리고 태묘 체협 친향의 신관과 중사인 적전의 친향의 궤향(饋享)에서는 ①국왕이 정문으로 들어와 관위로 나아갈 때만

7) 『고려사』 卷59.10a. 志13, 禮1, 吉禮大祀. 圜丘. 親祀儀. 省牲器. 省牲之日, …未後三刻…; 協律郎展視樂器, 各還齋所. 원문은 위의 책, 561쪽 인용, 번역문은 같은 책, 29~30쪽 인용.

8) 『고려사』 卷59.11b. 志13, 禮1, 吉禮大祀. 圜丘. 親祀儀. 奠玉帛. 祀日, …未明一刻…; 王入自正門, 協律郎跪俛伏, 舉麾興, …工鼓祝, 軒架奏黃鍾宮正安之曲. 王升降行止, 皆作正安之曲. 王至版位, 西向立, …偃麾戛敵, 樂止. 凡樂, 皆協律郎, 跪俛伏, 舉麾興. 工鼓祝而後作, 偃麾, 戛敵而後止. 太常卿, 前奏請“再拜”退復位. 王再拜. 奉禮曰, “再拜”衆官在位者, 皆再拜, 先拜者不拜. 太常卿, 前奏稱, “有司謹具, 請行事.” 退復位. 協律郎舉麾, 軒架奏夾鍾宮景安之曲三成, 黃鍾角·大簇徵·姑洗羽各一成. 文舞作六成, 偃麾樂止. 원문은 위의 책, 562쪽 인용, 번역문은 같은 책, 31~33쪽 인용 약간 수정함.

1번 협률량이 용악을 지시한다.

따라서 협률량이 용악을 지시하는 횟수가 친사의는 1회이고, 친향의는 의례에 따라서 2회 혹은 1회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구와 사직 유사섭사의 전옥백과 태묘 체협 유사섭사의, 사맹월 및 납일 유사섭사의 신관 그리고 적전 유사섭사의, 선잠 향의, 문선왕묘 석전의 궤향에서 협률량이 용악을 지시하는 때 역시 의식이 시작되어 음악이 처음 연주될 때이다. 유사섭사의는 친사이나 친향의의 ①에 해당하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해당 관청에서 삼가 준비하였으니 행사하소서.”라고 행사를 청할 때 1번만 협률량이 휘로 용악을 지시한다.

이상을 통해서도 국가의례에서 행례자 및 제례의 대상<sup>9)</sup>에 따라 협률량의 운용에 있어서 차등을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협률량이 휘를 들고 눕힐 때 예를 표하는 동작

『고려사』 원구 친사의에서 음악은 전옥백 기록에서 6번, 진숙(進熟) 기록에서 14번, 송신(送神) 기록에서 3번 연주되고 그치는데<sup>10)</sup> 모든 음악의 시작과 그침이

9) 조선시대의 유교적 국가제사에서서는 제사 대상에 따라 의례 내용이 차별화되고, 음악을 연주하는 횟수도 달라지며 악기 종류 및 악장의 내용도 달라진다고 한다. 송지원, 『조선시대 유교적 국가제사 의례와 음악-하늘, 땅, 인간과 음악-』, 『공연문화연구』 제27집(2013), 265쪽.

10) 『고려사』에서 옥과 폐백을 올리는 전옥백(奠玉帛) 기록에서는 ①국왕이 정문으로 들어와서 관위로 나아갈 때(헌가 연주), ②태상경이 “해당 관청에서 삼가 준비하였으니 행사하소서.”라고 행사를 청할 때(헌가. 태축이 연기를 올리고 희생물의 머리를 그을리는 동안 6번 연주), ③태상경의 인도로 국왕이 단에 오를 때(헌가), ④국왕이 옥과 폐백을 상제의 신위 앞에 올리고 재배할 때(등가), ⑤국왕이 폐백을 배위(配位)의 신위 앞에 올리고 재배할 때(등가), ⑥국왕이 관위로 돌아가 설 때(헌가) 총 6번 음악이 올리고 그친다. 다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진숙(進熟) 기록에서는 ①상제의 조(俎)가 처음 문으로 들어올 때(헌가), ②국왕이 너세위(盥洗位)에 설 때(헌가), ③국왕이 단에 오를 때(헌가), ④국왕이 상제의 신좌 앞에 술잔을 올릴 때(등가), ⑤왕이 재배할 때(음악 연주), ⑥국왕이 배위 앞에 가서 술잔을 올릴 때(등가), ⑦왕이 재배할 때(음악 연주), ⑧왕이 음복위에 나아가 술을 다 마시고 재배할 때(등가), ⑨국왕이 관위로 설 때(헌가), ⑩문무가 물러갈 때(헌가), ⑪무무가 들어올 때(헌가), ⑫태위가 상제의 신좌 앞에 술잔을 올릴 때(헌가, 향악을 번갈아 연주), ⑬광록경이 상제의 신좌 앞에 술잔을 올릴 때(헌가, 향악을 번갈아 연주), ⑭철변두(등가) 총 14번 음악이 올리고 그친다. 끝으로 신을 보내는 송신(送神) 기록에서는 ①송신(헌가, 향악도 번갈아 연주), ②국왕이 망료위에 설 때(헌가), ③태상경이 예필아 아래로 국왕이 대차로 돌아갈 때(헌가) 총 3번 음악이 올리고 그친다. 한편 고려시대 원구 친사의에서 국왕이 단 난가(鑾駕)가 승평문(昇平門)을 출발할 때 경궐(警蹕)은 올리지만 고취는 연주하지 않으며 떠들썩하게 소리치지 않는다. 그리고 끝으로 어가환궁에서는 국왕이 단 난가가 움직이면 고취 악대가 연주한다.

협률량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다만 전옥백의 ①, ②에서만 협률량의 지시에 의해서 음악이 진행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①에서 국왕이 정문으로 들어오면 협률량이 무릎을 꿇고[跪] 머리를 숙이며[俛] 엎드렸다가[伏] 휘를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악공이 축을 올린 다음에 헌가는 황종궁의 <정안지곡(定安之曲)>을 연주한다. 국왕이 관위에 이르러 서향으로 서면, 협률량이 (예를 갖추는 동작을 하지 않고 바로) 휘를 놓히고 이것을 신호로 악공이 어를 올리면 주악이 멈추었다. 그러나 ②에서 태상경이 행사하기를 청할 때는 협률량이 예를 갖추는 동작을 하지 않고 바로 휘를 들어 음악을 시작하게 하고 휘를 놓혀서 음악을 그치게 하였다. 따라서 협률량이 처음 휘를 들 때만 무릎을 꿇고[跪] 머리를 숙이며[俛] 엎드리는[伏] 예를 갖추는 동작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태묘 사맹월 및 납일 친향의 신관에서는 ①, ②에서만 협률량의 지시에 의해서 음악이 진행되었다. 이때의 협률량의 동작은 원구 친사의 전옥백에서와 거의 같은데 다만 ①에서 국왕이 관위에 서향하고 서면 (협률량이 휘를 놓히는 동작 없이) 음악이 멈추는 점만 다르다. 태묘 체협 친향의 신관에서는 ①에서만 협률량에 의해서 음악이 진행되었다. 이 의식에서도 태묘 사맹월 및 납일 친향의 신관에서와 동일하게 ①에서 국왕이 관위에 서향하고 서면 음악이 멈춘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태묘 친향의 신관에서는 ①에서 협률량의 지시 아래 음악이 시작되었지만 국왕이 관위에 서향하고 서면 음악이 멈췄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사인 적전 친향의 신관에서도 ①에서만 협률량에 의해서 음악이 진행되었다. 이때의 협률량의 동작은 원구 친사의 전옥백의 ①에서 보이는 협률량의 동작과 동일하다.

나머지 국왕이 친히 제사하지 않는 길례 의식에서는 원구 친사의 전옥백 절차의 ①에 해당하는 의식이 없고, 친사의의 ②에 해당하는 ㉠에서 처음 음악이 연주되는데 협률량의 지시에 의해서 음악이 진행되었다. 원구 친사의 전옥백에서는 ②에서 태상경이 행사하기를 청했을 때는 협률량이 특별한 동작을 하지 않고 바로 휘를 들어 음악을 시작하게 하고 휘를 내려서 음악을 그치게 하였다. 그러나 원구와 사직 유사섭사의 전옥백과 태묘 체협 유사섭사의와 사맹월 및 납일 유사섭사의 신관 그리고 적전 유사섭사의와 선잠 향의, 문선왕묘 석전의 궤향에



서는 ㉠에서 원구 친사의 전옥백의 ㉠처럼 협률량이 예를 갖추는 동작을 한다. 아마도 협률량이 휘를 잡고 하는 첫 동작이기 때문에 예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협률량이 무릎을 꿇고[跪] 머리를 숙이며[俛] 엎드렸다가[伏] 휘를 들고 일어나면 악공이 축을 울린 다음에 연주하고, 협률량이 휘를 놓히면 악공이 어를 울리고 주악이 멈춘다. 다만 태묘 체협 유사섭사의와 사맹월 및 납일 유사섭사의에서는 음악을 시작할 때 ‘무릎을 꿇는다[跪].’는 한자 없이 ‘머리를 숙이며[俛] 엎드렸다가[伏] 휘를 들고 일어난다.’고 기록하였으나 엎드리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만 하기에 ‘무릎을 꿇는다.’는 한자가 탈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 2) 조선시대

### (1) 『세종실록』 「오례」 길례에서의 협률량 운용 방식

『세종실록』 「오례」의 길례에서 음악이 사용되는 경우는 『고려사』 「예지」와 마찬가지로 대사와 중사이며 이때 반드시 협률량이 등장하였다. 『고려사』 「예지」와 『세종실록』 「오례」의 길례 의식 절차에서 협률량이 휘를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표 2>와 같다.<sup>11)</sup>

<표 3> 『고려사』와 『세종실록』 「오례」의 길례 의식에서 협률량의 음악 지시

『고려사』 길례 절차		협률량이 음악 지시	『세종실록』 「오례」 길례 절차		협률량이 음악 지시
원구. 친사의	전옥백	국왕이 관위로 나이감.(무릇 악 은 다 협률량이 휘로 지시)	×	×	×
		행사 청함.			
원구. 유사섭사의	전옥백	행사 청함.			

11)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 길례 의식에는 원구제례에 관한 내용이 없지만, 조선 전기 원구제례와 관련된 기록이 실록에서 확인된다. 『세조실록』에 실린 원구 「신제아악보」는 세조 3년부터 세조 10년 이전까지 원구제례에 사용된 아악이고, 세조 10년에 <정대업>과 <보태평>의 음악 즉 속악이 원구제례에 사용되었다. 송혜진, 『韓國 雅樂史 研究』(민속원, 2000), 245쪽.

대사	×	×	×	친제(親祭) 사직	전폐(奠幣) 거가환궁(車駕還宮)	전하가 관위로 나아감. (악은 다 협률랑이 지시) 하례에서 승좌(陸座).
	사직.	전옥백	행사 청합.	제사직(祭社稷) 섭사	전폐	행사 청합. (악은 다 협률랑이 지시)
	태묘, 철헍 친향의	신관	국왕이 관위로 나아감.	친협(親裕)종묘	신관 거가환궁	국왕이 관위로 나아감. (악은 다 협률랑이 지시) 하례에서 승좌.
	태묘, 철헍 유사섭사의	신관	행사 청합.	협향(裕享)종묘 섭사	신관	행사 청합. (악은 다 협률랑이 지시)
	태묘, 친향의 (사맹월 및 납일)	신관	국왕이 관위로 나아감. 행사 청합.	친향 종묘의 (사시 및 납일)	신관 거가환궁	전하가 관위로 나아감. (악은 다 협률랑이 지시) 하례에서 승좌.
	태묘, 섭사의 (사맹월 및 납일)	신관	행사 청합.	향(享)종묘 섭사 (사시 및 납일)	신관	행사 청합. (악은 다 협률랑이 지시)
중사	적전, 친향의	궐향	국왕이 관위로 나아감.	친향 선농	전폐	전하가 관위로 나아감. (악은 다 협률랑이 지시)
	적전, 유사섭사의	궐향	행사 청합.	향선농(享先農) 섭사	전폐	행사 청합. (악은 다 협률랑이 지시)
	×	×	×	사풍운너우산천성황(祀風雲雷雨山川城隍) 유사(霽祀)		
	선잠, 향사	궐향	행사 청합.	향선잠		
문선왕묘, 석전의 (2, 8월 첫 丁일)	왕세자 석전문선왕 유사 석전문선왕					

『고려사』 「예지」와 비교해서 『세종실록』 「오례」의 길례 의식에서 협률랑의 운용 방식은 크게 4가지 점에서 변화가 생겼다. 즉 ㉠ 협률랑의 인원수와 위치, ㉡ 협률랑의 용악 지시 횟수, ㉢ 협률랑이 휘를 들고 눕힐 때 예를 표하는 동작, ㉣ 거가환궁 후 하례에서 협률랑의 용악 지시 등에서 변화가 발견된다.

㉠ 협률랑의 인원수와 위치

『세종실록』 「오례」의 길례 의식에서 협률랑은 1명이 단 위 동쪽 혹은 당 위 전영 밖 서쪽 그리고 거가환궁 후 하례에서는 전계 위 서쪽에 위치하며 동향한다. 『고려사』 「예지」에서 국왕이 친히 제사하는 의례에서는 협률랑이 2명 배치되었는데 『세종실록』 「오례」에서는 헝가에 배치된 1명을 없앤 것이다.

#### ㉒ 협률량의 용악 지시 횟수

『세종실록』 「오례」 길례 의식에서 협률량이 휘를 사용한다는 기록은 전폐 혹은 신관에서 처음 음악이 연주될 때 1번만 보인다. 즉 전하가 직접 참석하는 의례에서는 전폐 혹은 신관에서 ①전하가 관위로 나아갈 때 협률량이 휘를 사용한다. 그리고 나머지 해당 관청에서 대행하는 의례에서는 전폐 혹은 신관에서 ㉑ “해당 관청에서 삼가 준비하였으니 행사하소서.”라고 행사를 청할 때 협률량이 휘를 사용한다.

이것은 『고려사』에서 원구 친사의 전옥백과 태묘 사맹월과 납일 친향의 신관에서 ①국왕이 정문으로 들어와서 관위로 나아갈 때와 ②“해당 관청에서 삼가 준비하였으니 행사하소서.”라고 행사를 청할 때 2번 협률량이 휘를 사용하여 용악을 지시하는 것과 비교해서 ②에서의 용악 지시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대로 『고려사』 「예지」 길례 대사 원구 친사의 전옥백에는 “무릇 음악은 모두 협률량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엎드렸다가 휘를 들고 일어나면 악공이 축을 올린 다음 연주하며, 휘를 눕히고 어를 올린 다음에 중지한다.”는 문구가 있다. 따라서 실제로 원구 친사의에서는 모든 음악의 시작과 그침을 협률량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세종실록』 「오례」 길례 대사와 중사의 전폐 혹은 신관 절차에서 처음 음악이 연주될 때 협률량이 휘를 사용한다는 설명 다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세종실록』 「오례」 길례 의식에서는 모든 음악의 시작과 그침이 협률량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㉓ 협률량이 휘를 들고 눕힐 때 예를 표하는 동작

『세종실록』 「오례」 길례 의식에서 모든 음악의 시작과 그침이 협률량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무릇 모든 음악은 협률량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엎드렸다가 휘를 들고 일어나면 악공이 축을 올린 다음 연주하며, 휘를 눕히고 어를 올린 다음에 중지하였다. 협률량이 매번 휘를 들어서 음악을 시작할 때만 예를 표하는 동작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2)</sup> 『고려사』 「예지」 태묘 사맹월 및 납일 친향의에서 첫 번째 협률량이 휘를 사용할 때는 휘를 눕히지 않아도

국왕이 관위에 서향하고 서면 음악이 끝났고, 두 번째 휘를 들 때는 예를 갖추는 동작 없이 바로 휘를 들어서 음악을 시작했던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세종실록』 「오례」에서 협률량의 예(禮)가 더 꼭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거가환궁 후 하례에서 용악 지시

『세종실록』 「오례」 길례 대사에서 전하가 직접 참석하는 의례에서는 의식이 끝나서 거가환궁(車駕還宮)한 후 하례에서 전하가 자리에 오르면 협률량이 용악을 지시한다. 다만 길례 중사 친향선농의에는 하례(賀禮)가 없기<sup>13)</sup> 때문에 협률량의 역할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려사』 길례에서는 거가환궁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하례는 가례<sup>14)</sup>에서 친사 후에 재궁에서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원구 외에도 우사, 체협향, 시향, 태묘향, 선농, 경적에 친히 행차한 후 재궁에서 하례를 받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용악에 대한 기록이 없다.

#### (2) 『국조오례의』 이후 길례에서의 협률량 운용 방식

『국조오례의』 길례에서는 ㉠ 협률량의 용악 지시 횟수가 『세종실록』 「오례」의 것과 달라졌다. 그리고 ㉡ 거가환궁 후 하례에 관한 기록이 길례가 아닌 가례에 기록된 점에서 달라졌다.

#### ㉠ 협률량의 용악 지시

협률량이 휘를 사용한다는 기록은 전폐 혹은 신관에서 처음 음악이 연주될 때 1번만 보이는데 『세종실록』 「오례」와 달리 전하가 친히 제사하는 의례에서도 유사섭사의에서와 같이 “해당 관청에서 삼가 준비하였으니 행사하소서.”라고

12) 『세종실록』 卷129.5b. 「五禮」 吉禮儀式. 親祭社稷儀. 奠幣. “凡樂皆協律郎跪俛伏舉應興 工鼓祝而後作 偃應戛敵而後止”

13) 『세종실록』 卷131.6a. 「五禮」 吉禮儀式. 親享先農儀. “○車駕還宮. 如宗廟儀, 但無賀禮.”

14) 『고려사』 卷67.36ab. 志21, 禮9, 嘉禮. 親祀圓丘後齋宮受賀儀. “壽祀, 圓丘, 禘祫享, 及時享, 太廟享, 先農, 耕籍親幸後 齋宮受賀 並同比儀.”

행사를 청할 때 협률랑이 휘를 사용한다. 즉 전하가 관위로 나아갈 때는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조오례의』 친제 사직의에서만 “무릇 음악은 모두 협률랑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엎드렸다가 휘를 들고 일어나면 악공이 축을 올린 다음 연주하며, 휘를 놓히고 어를 올린 다음에 중지한다.”<sup>15)</sup>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사』 원구 친사의에서만 모든 음악의 시작과 그침을 협률랑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국조오례의』에서는 옛 제도에 맞게 가장 중요한 길례 제사인 친제 사직의에서만 모든 음악의 시작과 그침이 협률랑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1472년(성종 3)에 조관이 아닌 전악이 협률랑을 맡는 것은 옛 제도에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1472년 이후부터 갑오개혁 이전까지 422년 동안은 장악원의 정이 협률랑이 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된다.

한편 명나라가 청나라에 멸망한지 60년이 되던 1704년(숙종 30)에 숙종의 명으로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원해 준 명나라 신종(神宗)의 은의(恩義)에 보답하기 위하여 창덕궁 금원(禁園)에 대보단(大報壇) 즉 황단(皇壇)을 설치하였고, 1747년(영조 23)에 황단 친향의,<sup>16)</sup> 왕세자 섭사의,<sup>17)</sup> 대신(大臣) 섭사의<sup>18)</sup> 의식 절차를 『황단의(皇壇儀)』에 정리하였다. 황단악은 인귀에 제사하는 것이므로 의식 절차와 악장, 악곡은 인귀의 예를 따랐다.<sup>19)</sup>

그런데 황단 친향의에서는 『국조오례의』의 친제 사직의에서처럼 행사를 청할 때 처음으로 협률랑이 휘를 사용하여 음악을 지시하는데 “무릇 음악은 모두 협률랑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엎드렸다가 휘를 들고 일어나면 악공이 축을

15)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卷1.4b7. 吉禮. 親祭社稷儀. 春秋及臘祭社稷儀. 奠幣. “凡樂皆協律郎跪伏舉應興 工鼓祝而後作 偃應戛敵而後止”

16) 『황단의(皇壇儀)』 卷2.12b4-5. 親享儀. ○晨祿. “協律郎偃應 工戛敵樂止. 凡樂皆協律郎俯伏舉應興 工鼓祝而後作 偃應戛敵而後止.”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청구번호 14308

17) 『황단의』 卷2.26a2-3. 王世子攝事儀. ○晨祿. “協律郎偃應 工戛敵樂止. 凡樂皆協律郎俯伏舉應興 工鼓祝而後作 偃應戛敵而後止.”

18) 『황단의』 卷2.34b9-35a1. 大臣攝事儀. ○晨祿. “協律郎偃應 工戛敵樂止. 凡樂皆協律郎俯伏舉應興 工鼓祝而後作 偃應戛敵而後止.”

19) 김중수, 『조선후기 황단악 연구』, 『국악원논문집』 제8집(국립국악원, 1996), 27~28쪽.

올린 다음 연주하며, 휘를 높히고 어를 올린 다음에 중지한다.”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모든 음악의 시작과 그침이 협률량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조오례의』의 사직 섭사의에서는 협률량이 음악을 지시하는 것이 1번뿐인데 비해서 황단 섭사의에서는 섭사의임에도 불구하고 황단 친향의에서와 동일하게 모든 음악의 시작과 그침이 협률량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결국 황단악이 의식의 절차와 악장, 악곡은 인귀의 예를 따랐지만, 협률량의 용악 지시 횟수는 친제 사직의의 예를 따랐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1704년(숙종 30) 12월 예조에서 황단악은 사직의 예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sup>20)</sup>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서 조선왕실에서 황단 제사를 매우 귀히 여겨 예를 곡진히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1)</sup>

#### ㉠ 거가환궁 후 하례에서 용악 지시

『국조오례의』에는 춘추 및 납일의 사직제와 사시 및 납일의 종묘향사가 끝나고 거가환궁한 뒤에 하례하는 의식이 가례<sup>22)</sup>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길례에 하례 의식을 기록한 『세종실록』 『오례』와 달라진 점이다. 오히려 『고려사』 가례에서 친사 후에 진행된 하례를 기록한 것과 같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례에서 협률량이 용악을 지시하는 내용은 『국조오례의』와 『세종실록』 『오례』의 것이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20) 『숙종실록』 숙종 30년 12월 16일 (임오)

21) 대한제국기에는 황단 제사[대보단의]가 길례의 대사에 속하는데 제례악으로 아악을 사용하였다. 임미선, 『조선조 궁중의례와 음악의 사적 전개』(민속원, 2011), 217~218쪽.

22) 『국조오례의』 卷4.48a4. 嘉禮. 賀儀. “親行大社 及凡有大慶祥瑞 出師勝捷 皆賀.”

〈표 5〉 길례 의식에서 협률량의 운용 방식 변화

		『고려사』 『예지』		『세종실록』 『오례』		『국조오례의』	
		친사(향)	섭사	친제(협/향)	섭사	친사	섭사
인원수		2	1	1		1	
위치	등가	서북쪽(원구), 서쪽(태묘, 적전)	동남쪽(사직) 서북쪽(원구, 적전, 선감)	동쪽(사직) 서쪽(종묘, 선농, 풍운뇌 우산천성황, 선감, 석전문 선왕/거가환궁)		동쪽(사직) 서쪽(나머지 제사)	
	헌가	서북쪽	서쪽(태묘, 문선왕묘)	역할 無		역할 無	
방향		동향 서향(사직)		동향 서향(사직)		동향 서향(사직)	
용악 지시 횃수	매번	원구 (국왕이 관위로 나이감~)		전하가 관위 로 나이감~	행사 청함~	사직 (행사청함~)	
	2회	태묘 사맹월급납 (①국왕이 관위로 나 이감. ②행사 청함)					
	1회	태묘 체협, 적전 (국왕이 관위로 나이감)	원구, 사직, 태묘, 적 전, 선감, 문선왕묘 (행사 청함)			나머지 제사 (행사 청함)	
跪俛伏 동작		첫 번째 악작만.		악작.		악작.	
하례 시 용악 지시		용악 無		×		역할 有 (사직, 태묘)	×

### 3. 결론

본 연구는 『고려사』 『예지』와 『세종실록』 『오례』 그리고 『국조오례의』에 기록된 길례 의식에서 휘를 잡고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했던 협률량의 운용 방식을 비교한 글이다. 그 결과 ① 인원수와 위치, ② 의식에서 용악 지시 횃수, ③ 휘를 들고 놓힐 때 예를 표하는 동작, ④ 거가환궁 후 하례에서 용악 지시 여부 등 4가지 점에서 변화가 생겼음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서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협률량의 인원수와 관련해서, 고려시대에는 친사의 등가·헌가에 각각 1명씩 2명이 있었고 유사섭사의 등가에 1명이 있었으나, 조선시대에는 친사와

유사섭사 구분 없이 등가에 1명만 있었다. 협률랑의 서 있는 위치와 관련해서 고려시대에는 서북쪽, 동남쪽 등 정방향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도 있었지만 조선시대에는 모두 정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점이 달라진 점이다.

둘째, 협률랑의 용악 지시 횟수와 관련해서, 고려시대에는 친사나 유사섭사나에 따라서 협률랑의 용악 지시 횟수가 달랐다. 원구 친사의에서는 국왕이 판위로 나아갈 때부터 매번 용악을 지시하였고, 태묘 사맹월 및 납일 친향의에서는 국왕이 판위로 나아갈 때(첫 번째 음악이 사용됨)와 행사를 청할 때(두 번째 음악이 사용됨) 2회 용악을 지시하였으며, 태묘 체협 친향의와 적전 친향의에서는 국왕이 판위로 나아갈 때(첫 번째 음악이 사용됨) 1회만 용악을 지시하였다. 모든 유사섭사의에서는 행사를 청할 때(첫 번째 음악이 사용됨) 1회만 용악을 지시하였다.

협률랑의 용악 지시 횟수와 관련해서, 조선시대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세종실록』 『오례』 친사의에서는 전하가 판위로 나아갈 때(첫 번째 음악이 사용됨)부터 매번 음악이 사용될 때마다, 유사섭사의에서는 행사를 청할 때(첫 번째 음악이 사용됨)부터 매번 음악이 사용될 때마다 용악을 지시하였다. 『국조오례의』에서는 전하가 판위로 나아갈 때는 음악을 사용하지 않고 행사를 청할 때 처음 음악이 사용되었다. 친제 사직의에서만 매번 음악이 사용될 때마다 용악을 지시하였고 나머지 제사는 처음 음악이 사용될 때만 용악을 지시하였다. 이것은 옛 제도와 같이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길례 제사인 친제 사직의에서만 모든 음악의 시작과 그침이 협률랑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단, 조선왕실에서 중요하게 여긴 황단 제사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친향의뿐만 아니라 섭사의에서도 모든 음악의 시작과 그침이 협률랑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셋째, 협률랑이 휘를 들고 눕힐 때 예를 갖춰하는 동작 즉 무릎을 꿇고[跪] 머리를 숙이며[俛] 엎드리는[伏] 동작을 언제 몇 회나 했는가에 관련해서 살펴보았다. 모두 악작에서만 예를 갖췄는데, 고려시대에는 첫 번째 악작에서만 예를 갖췄고, 조선시대에는 협률랑이 용악을 지시하는 모든 악작에서 예를 갖췄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협률랑의 예가 더욱 곡진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넷째, 거가환궁 후 하례에서 협률랑의 용악 지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고려사』에는 거가환궁 전, 제사 후에 재궁에서 하례를 받았다고 기록하였으나 용악에 대한 설명은 없다. 『세종실록』 「오례」에서는 길례 대사 중 전하가 직접 참석하는 의례에서는 의식이 끝나고 거가환궁 후, 전하가 자리에 오르면 협률랑이 용악을 지시하였다. 『국조오례의』에서도 사직제와 종묘 향사가 끝나고 거가환궁 후 하례 시에 협률랑이 용악을 지시하였다.

결국 국가의례에서 행례자 및 제례의 대상에 따라 의례 내용에 차등을 둔 것과 같은 원리로 협률랑의 운용에 있어서도 차등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참고문헌

『高麗史』

『國朝五禮儀』

『朝鮮王朝實錄』

『皇壇儀』

김종수(1996). 『조선후기 황단악 연구』, 『국악원논문집』 제8집. 국립국악원.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2011). 『국역 고려사』 16, 지4. 경인문화사.

송지원(2013). 『조선시대 유교적 국가제사 의례와 음악-하늘, 땅, 인간과 음악-』, 『공연문화연구』 제27집.

송혜진(2000). 『韓國 雅樂史 研究』. 민속원.

이재숙 외(1998). 『조선조 궁중의례와 음악』. 서울대학교 출판부.

임미선(2011). 『조선조 궁중의례와 음악의 사적 전개』. 민속원.

최선아(2015). 『협률랑(協律郎)의 관제(官制)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사학보』 제55집. 한국음악사학회.

【ABSTRACT】

## A study on the mode of operation of Hyomyullang(協律郎) in auspicious rite(吉禮)

Choi, Sun-A

(Senior Researcher, Asian Music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Hyomyullang* is a government official in charge of signaling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royal ritual music using a hui(麾). This paper has examined the mode of operation of *Hyomyullang* in *Koryo Dynasty* period such as the number of *Hyomyullangs* and their position, the number of instructions for playing music, and the action of expressing courtesies in auspicious rite(吉禮) based on the review of the records of the 『*History of Koryo Dynasty(高麗史)*』 『*Yeji(禮志)*』. The findings are as follow. *Hyomyullang* was operated in commensurate with rank and seniority just as national rituals were performed in a differential manner according to the target of memorial rites and performer of the ritual. And the examination of the 『*Sejong Chronicles(世宗實錄)*』 『*Orye(五禮)*』 and 『*National Five Rites(國朝五禮儀)*』 indicates that there was a change in the mode of operation of *Hyomyullang* in auspicious rite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I also find the courtesies of *Hyomyullang*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more sincere and detailed.

【Keywords】 Hyomyullang(協律郎), hui(麾), auspicious rite(吉禮), five rites(五禮), National memorial rites